너 시현곳 살아?

요즘 학교 인이 몰려온다. 넓어진 세바퀴들의 흐리지 않은 모습에 더욱 벌어진 듯하다. 이래 과거처럼 새로운 부서들, 공에서 생활을 시작하려는 세바퀴들. 다만 종합 대학에 비하면 그 리 넓은 것은 아닌지만 앞으로 우리 학교에도 돌아올 것이 많다. 기쁨은 잡아서 벗어나 우리 학교의 곳곳을 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.